

나주빛누리초,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나눔 바자회' 운영

전교학생회·학부모회 주관... '아나바다 장터' 운영 바자회 통해 자율적으로 모아진 1,531,070원 기부

나주빛누리초등학교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전교학생회와 학부모회 주관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나눔 바자회'를 운영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구입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쓸 만한 물건들을 모아 학생 스스로 판매하고, 구입을 원하는 학생들은 매대를 돌아다니며 꼭 필요한 물건을 골라보았다.

평소 전교학생회의 및 학급회의에서 정한 학교생활 규칙을 실천하여 얻은 포인트로는

'빛누리 매점'에서 핫팩과 손세정제, 간식꾸러미, 등으로 교환하였다. 학부모회에서는 직접 튀긴 고소한 팝콘을 학생들과 나누었고, 'No플라스틱 약속 캠페인' 참여를 통해 환경 보호 실천의 의지를 다지고 종이팩 물을 나누기도 하였다.

1학년 김OO 학생은 "친구들에게 물건을 파는 게 재미있었고, 꼭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사게 되어 기쁩니다. 또 수업 시간에 배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며 나눔 바자회에서 구입한 카드와 함께 즐거운

미소를 보였다.

나눔 바자회를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교학생회장 오OO 학생은 "바자회 준비를 하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고 보람 있었습니다."라며 뿌듯한 마음을 밝혔다.

학부모회장 백OO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환경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 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2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추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나눔 바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모아진 기부금은 총 1,531,070원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쓰일 예정이다. 빛누리초는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 청풍초, 겨울스포츠 '스키캠프' 개최

화순 청풍초등학교가 지난 15일부터 16일 까지 2일 동안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3-6학년 학생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운영했다.

첫날 오전에 무주덕유산리조트로 이동하여 스키복, 장비를 대여한 후, 오후부터 기초 강습을 시작으로 강사와 함께 조금 단계로 이동하여 스키 체험이 시작되었다. 이번 스키캠프

를 위해 광주 시내 스키장에서 이틀 동안 스키 강습을 받았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쉽게 스키를 탈 수 있었고, 기초 강습 시간을 줄여 조금 단계에서 스키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16일 금요일도 조금 단계에서 강사선생님과 함께 스키를 탈 수 있었다.

화순=박순철기자

여수양지초, '드림현악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성료

음악에서 영화 보는듯한 생동감·웅장함 선사



여수양지초등학교는 지난 19일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여수양지초 드림현악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여수양지초 드림현악오케스트라 창단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서규열 교육장과 이경애 교육지원과장, (사)전남문화예술협회 흥

의현 대표, 김희재 국회의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허광양 원장, 전남대글로벌교육원 고승욱 원장을 비롯한 여수양지초 교육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5월 20일에 창단하여 7개월 동안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소리를 그려나간 드림현악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판타지아', '위풍당당행

진곡', '송어'와 같은 서정적인 분위기의 클래식뿐 아니라 'The Avengers(영화)어벤져스:인피니티 워' OST를 포함한 영화 OST를 현악4중주의 경쾌한 멜로디로 선보이며 음악에서 영화를 보는듯한 생동감과 웅장함을 선사하였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여수양지 교육가족들의 지원사격이 돋보였다. 본교 5,6학년 학생들은 통통 튀는 칼림바 연주로 연주회의 서막을 열었고, 사회자의 연주곡 해설로 감동의 깊이를 더하여 창단연주회의 음악적 흥미를 더하였다. 무엇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이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기보다 함께 소리를 만들어가며 서로의 연주에 몰입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듣는 이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었으며, 모두의 꿈이 숨쉬고 역동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수=김현근기자

고흥 백양초-백양중, 초-중 연계 북콘서트

고흥 백양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고흥백양중학교와 초-중 연계 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두 학교는 특화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교로 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체험하며 독서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자 고흥백양중에서 계획하여 실시한 것이다.

북 뮤지션인 제갈인철님의 (책과 노래가 즐거운 만남)은 내 짝꿍 최영대 외 다양한 책을 낭송과 퀴즈, 노래, 춤으로 만나고 작가님의 경



험담을 통한 진로 탐색으로 3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강진교육청, 학부모 위한 힐링 북 콘서트 개최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저자 김경림 작가 초청 강연

강진교육지원청은 강진진로체험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해 학부모의 자녀 양육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힐링 북 콘서트를 지난 19일, 강진읍 카페에서 운영했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는 도서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저자인 김경림 작가를 초청

해 육아가 힘들고,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한 엄마들을 위한 맘 편한 육아 상담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광희 교육장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육아의 기술을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갔으면 합니다. 2022년 한해 아이들과 열심히 부대껴 온 학부모님들께서 마음의 고민을 털고, 새로운 해에는 강진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